전남지역 석탑의 출현과 특성

Beginning and Characteristics of Stone pagoda in Jeonnam Region

천 득 엄*

Cheon, Deuk Youm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Abstract

Formative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tone pagoda in Jeonnam area are known in largely two flows. One is that characteristic of stone pagoda in Jeonnam area of the Unified Silla is shown in eastern Jeonnam and some southern Jeonnam. But it is not shown in surroundings of Yeongsan river. Another is that besides stone pagoda in Silla style where social aspects of Goryeo are reflected, stone pagoda in Baekje style appeared. On the other hand, stone brick pagoda and non-typical stone pagoda appeared. These stone pagodas were developed mainly in north and west of Jeonnam, and could be classified in pure Baekje style and a cross style according to formative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Stone brick pagoda is extant in Wolnamsa site and Woonjusa in Chungcheong and Jella areas which are old places of Baekje.

주제어 : 광주전남, 불교건축, 석탑, 전남석탑특징

Keywords : Gwangju, Jeollanamdo, Buddhist architecture, Pagodas, Characteristics of pagoda in Jeonnam Region

1.서언: 전남지역 불교건축의 출발과 성격¹⁾

언제 전남지역에 불교가 도입되었을까? 백제에 불교가 도입된 침류왕 원년(384년) 이후 불교는 점차 남하하면서 영향력이 증대 되었고, 광주, 전남지역에까지 세력이 다다르게 되었을 것이다. 가설적으로 백제가 마한을 통합(근초고왕 24년, 369년)하고 나서 불교가 유입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불명하다. 다만 불교도입 초기에 위례성이 수도였던 만큼 당시 상황으로 보아 한반도 아래쪽까지 널리 포교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수도가 웅진과 사비로 점차 이동하면서 성왕을 비롯한 제왕들의 불교장려책으로 사찰들이 전북지역에까지 지어지게 되었다. 전북 익산의 미륵사를 비롯한 각종 석탑과 사지가 이를 대변하고 있으나 전남에서는 백제시대의 불교유물이 아직 학계에서 공인될

정도로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 통일신라시대의 것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교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약 400년 가까이 전남지방에는 백제불교미술의 뚜렷한 잔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다.

이처럼 전남지역에는 고구려와 백제에 불교가 들어오고 난 후로 좀 늦게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영산강유역에 마한이라는 강력하고 문화적으로 주체적인 세력이 자리하고 있었고 백제의 중심 세력권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어서 불교의 도입이 늦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전남지방의 현존 사찰 중에서 영광 불갑사, 나주 불회사는 침류왕 원년 마라난타 창건이라 하나 근거가 희박하다. 이는 당시의 기록이 아닌 조선후기의 기록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암사는 26대 성왕 7년(529) 아도화상 창건이라 하지만 아도화상의 생존연대가 맞지 않아 문제가 있고 백양사는 30대 무왕 33년(633) 如幻大師가 창건하였다 하나 이 또한 분명한 근거가 없다.

* Corresponding Author : dycheon@hanmail.net

1)천득엄, 한국의 건축문화재(광주 전남편), 기문당. 의 내용을 주로 참조함.

이들 뿐만 아니라 무위사, 대흥사, 화엄사, 곡성 관음사, 개천사, 나주 죽림사 등이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한다.²⁾ 그러나 근자에 월남사지 등 몇몇 사지가 발굴되었고 그곳에서 백제시대의 것으로 짐작되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장차의 연구결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남지방에 백제시대의 불교가 전파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지역의 거점에만 전파되었기 때문에 많은 불교 유물,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³⁾는 견해도 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에는 선종이 성행하여 5교 9산으로 대별되어 불교가 발전하였는데 9산중 가지산문의 보림사, 동리산문의 태안사 등이 전남지역에 자리하여 불교진흥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전국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가장 번성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시대의 불교종파로는 화엄종을 비롯하여 자은(법상), 남산(계율), 조계(선종), 천태, 법성, 열반, 시흥 등 12종가가 있었다. 이 중에서 활약상이 큰 것은 조계종, 화엄종, 자은종, 천태종이었는데 특히 전남에서는 조계종이 현 송광사를 근본도장으로 펼친 선불교 중흥을 위한 定慧結社를 일으켰고, 화엄사상을 펼치기 위하여 천태종이 강진 만덕사(현 白蓮寺)를 중심으로 한 백련결사를 일으켜 불교중흥을 꾀했다. 이 운동은 고려시대 불교 중흥의 대표적인 주류로서 전남이 중심이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송유억불정책으로 인한 불교의 탄압으로 불교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산지불찰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태조나 세조의 개인적인 好佛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사찰은 축소 통폐합을 거듭하였으며 임진왜란 직후에는 이전의 법통을 유지한 사찰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 시대의 전남지역 사찰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찰은 깊은 산에서만 볼 수 있었다. 악조건 속에서도 전남지역에는 고승 및 고찰들이 많이 있어 그나마 불교의 줄기를 이어 갈 수 있었다. 임란 의병장으로 활약한 서산대사가 대흥사에 가사와 바리때를 전하여 보관하게 하였거니와 나중에는 이 절에 초의선사가 자리 잡음으로써 불도의 맥을 잇게 하여 선풍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특히 승려들의 왕성 출입을 금지하고 전국에 선종과 교종의 사찰 18개씩만을 남기는 정책으로 불교를 억압하여 승려들이 왕성에

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던 조선시대에도 그들은 풍토적으로 신앙심이 두터운 전라남도로 많이 찾아들었다.

전남에는 이른바 사찰 21본산 가운데 5대 본산이 있으며 특히 禪門이 많다. 선문이라면 흔히 九山을 들지만 그 가운데 三山이 이 고장에 있으니 가히 선종의 태자리라 할 만하다. 선문은 장흥의 보림사, 지리산의 실상사, 곡성의 태안사 등이다. 뿐만 아니라 16국사를 낸 승보사찰 송광사를 비롯하여 유서 깊고 뼈대 있는 큰절이 많고 비록 작고 쇠락하였으나 반듯한 법통을 지닌 절들이 골골에 자리 잡고 있다.

전남지역의 사찰건축은 삼국시대 초기 사찰과 같은 정형적인 형태는 찾을 수 없다. 즉 8각의 목탑을 중심으로 3급당이 주위에 배치된 고구려식 가람배치나 중문, 탑, 금당, 강당, 회랑이 중심축 상에 배치된 백제와 신라식 가람배치형식은 전무하다. 또한 백제식과 신라식 가람배치에 1탑이 2탑으로 변한 형식인 통일신라식 가람배치 형식이 이 지역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⁴⁾ 그 이유는 전남지역이 왕도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라는 점과 사찰의 창건이 다소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람의 형식이 변모되었고 지역적 환경에 적응한 것이라 짐작된다. 아니면 전남지역 특유의 토착문화가 있어 불교문화가 도입되는데 다소 거부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삼국시대 초기사찰이 왕도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건립되고 평지에 교종의 교리에 따라 세워졌으나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창건된 전남지역의 사찰들은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선종의 교리에 따라 산속 깊숙이 산지에 세워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시대 이후의 사찰들은 도선국사의 영향을 대부분 받아 풍수사상의 원리에 입각하여 입지하였기 때문에 산중의 요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산중의 계곡에 사찰이 입지하면 자연히 대지의 조건이 협소하고 불리한 곳이 된다. 따라서 대지의 형상이 방형이 아닌 불규칙한 형태가 되고 경사가 급한 계곡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 단의 축대를 쌓고 점점 상승하면서 각종 전각이 배치된다. 또한 중심축의 개념이나 중정의 성격이 약화되어 대지의 형상에 따라 유리한 곳에 편리하게 위치하였다. 더

2) 성춘경, 『전남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6, p.15

3)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백제문화와 전남, 불교)』 제3권, 1993, p.50

4) 보림사, 선암사, 화엄사, 실상사 등의 사찰은 2탑식가람형식이다.

육이 창건당시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중창할 때마다 새로운 전각들이 부가되어 복합적이고 불규칙한 형식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 등으로 유명한 전각들이 불에 타 최근에 복원하였으니 원래의 모습을 더욱 잃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찰의 본래의 기능을 갖는 전각들 이외에 전쟁과 관련된 건물들도 사찰의 경내에 건립되어 있다. 또한 기복신앙과 무속신앙에 따라 전각들도 부가되어 경내에는 수십 개의 전각과 요사채, 승방, 선방, 칠성각, 산신각 등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2. 전남지역 석탑의 출현

현존하는 한국의 석탑은 7세기 초의 미륵사지석탑을 효시로 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수입된 것은 4세기 후반부터이지만 적어도 현존하는 유물에 관하는 한 전남지방에서 확인되는 불교미술품은 8세기 중엽의 화엄사 사자삼층석탑으로 부터 출발되고 있다. 물론 전라남도 내에 몇 사찰이 문헌상으로는 백제시대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으나 조선시대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전남지방은 백제 근초고왕(369) 대까지 마한에 속하였으나 그 후 백제가 망할 때까지 약 300년간은 백제의 문화권에 있으면서 이때의 불교유물은 물론 고려조에 접어들어서도 백제계양식의 문화적 재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다만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양식의 불교미술이 전라도 지역에 널리 나타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전남지역에서는 삼국시대의 석조 불교문화유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러한 현상은 석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이 지방 전통문화 자체에 불교를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⁵⁾ 무언가 불교수용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있었을 것인데 이는 전남의 지리적인 위치와 토착성이 강한 문화적 특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Fig 1. Hwaeomsa Four Lions-3 story Stupa (화엄사 四獅子 三層石塔)

이 지역의 토착세력이 기존문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지배세력의 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았나 하고 추정 되는 것이다.

또 왜 통일신라시대에는 백제의 고토에 백제적인 문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은가? 이는 고려시대에는 백제의 문화를 재현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여러 가지 유구에서 백제적인 양상들이

보이고 있음과는 비교가 된다할 것이다. 아마 신라에 의한 통일은 백제의 옛 영토에서 백제의 정치, 문화적인 잔재가 남아 있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견이 가능하다.

-전남은 당시의 국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아무래도 불교문물의 도입이 늦어졌을 것이다. 또한 백제가 익산의 도읍경영을 끝으로 대규모 가람을 조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주와 부여지역, 그리고 전북 익산까지는 그 영향력을 미치나 전남 지방까지는 내려 올 여유가 없었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자에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음은 주목할 대상이다.

-다른 논거로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백제의 영향력이 전남지방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즉 근초고왕 24년(369)에 마한의 잔재세력이 백제에 소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지역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집단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과거 전남지방의 제반 문화양상이 한강유역이나 금강유역에서 발달한 백제문화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묘제의 독자성을 들 수 있는데 백제의 묘제로서 대표적인 석실분과 전남지방의 대표적인 묘제인 옹관묘와의 강한 대비성을 지닌다. 즉 이 지역의 전통묘제인 옹관묘 문화를 이루고 있던 집단이 백제의 정치적 영향권 내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문화형태를 고집하여 불교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5) 강인구, 『백제문화와 호남』, 광주박물관대학, 1982, p.61;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제3집, p.706의 성춘경 글 참조.

<Table1> List of Stupa in Jeonnam Region (전남지역의 석탑 목록)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광주광역시의 석탑(9기)		
보물 제109호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보물 제110호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동구 지산동 448-4
광주 시도유형문화재 제1호	증심사 삼층석탑	동구 윤립동 56
광주 시도유형문화재 제12호	신통동 오층석탑	광산구 신통동 57-1
비지정	약사사 삼층석탑	동구 증심사길 160번길 89
비지정	광주 장운동 오층석탑	북구 매곡동 산 83-3 국립광주박물관
비지정	담양 서봉사지 석탑과 부도	북구 용봉동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비지정	영암 청풍사지 석탑	북구 용봉동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비지정	(전)장성 흥법사지 석탑	북구 매곡동 산 83-3 국립광주박물관
강진군의 석탑(3기)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54
보물 제829호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강진군 군동면 과산리 1012-2
전남 문화재자료 제76호	강진 무위사 삼층석탑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고흥군의 석탑(1기)		
전남 문화재자료 제184호	고흥 상림리 삼층석탑	고흥군 풍양면 야막리 515-4
곡성군의 석탑(2기)		
보물 제1322호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2
전남 문화재자료 제170호	곡성 태안사 삼층석탑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구례군의 석탑(8기)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사자사 삼층석탑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보물 제132호	구례 화엄사 동 오층석탑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보물 제133호	구례 화엄사 서 오층석탑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보물 제151호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354
보물 제300호	구례 화엄사 원통전 앞 사자탑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보물 제509호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 51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12호	구례 사도리 삼층석탑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산33-1
비지정	화엄사 구층암 삼층석탑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광양시의 석탑(2기)		
보물 제112호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90-1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5호	광양 성황리 삼층석탑	광양시 성황동 746
나주시의 석탑(2기)		
보물 제50호	나주 북망문 밖 삼층석탑	나주시 건재로 41-1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78호	나주 송제리 오층석탑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706-1
비지정	나주 심향사 삼층석탑 및 석탑재	
비지정	나주 복암사 이층석탑	
담양군의 석탑(3기)		
보물 제506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342
전남 문화재자료 제20호	담양 연곡사지 삼층석탑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8
전남 문화재자료 제200호	담양 연동사지 삼층석탑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 91-3
보성군의 석탑(4기)		
보물 제943호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326-17
보물 제1115호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보성군 북내면 봉천리 767-1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141호	보성 옥마리 오층석탑	보성군 노동면 옥마리 348
전남 문화재자료 제133호	보성 계산리 삼층석탑	보성군 북내면 계산리 590
순천시의 석탑(4기)		
보물 제395호	순천 선암사 동·서 삼층석탑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보물 제831호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길 208
보물 제945호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산 2-1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116호	향림사 삼층석탑(2기)	순천시 석현동 230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신안군의 석탑(2기)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71호	신안 읍리 삼층석탑	신안군 팔금면 읍리 350-1
전남 문화재자료 제193호	신안 흑산 진리 무심사지 삼층석탑과 석등	신안군 흑산면 진리 721-1 외
영광군의 석탑(1기)		
보물 제504호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영광군 묘량면 묘량로2길 40-89
비지정	영광 연흥사 석탑	
영암군의 석탑(4기)		
보물 제1118호	영암 성룡사지 오층석탑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533-1
보물 제1283호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산 26-8
보물 제1433호	영암 도갑사 오층석탑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비지정	도갑사 삼층석탑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비지정	월출산 삼층석탑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장성군의 석탑(3기)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131호	장성 내계리 오층석탑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51
전남 문화재자료 제101호	장성 진원리 오층석탑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121-4
전남 문화재자료 제103호	장성 수산리 오층석탑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427
비지정	백양사 팔층석탑	
장흥군의 석탑(3기)		
국보 제44호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
보물 제795호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135호	장흥 천관사 오층석탑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
진도군의 석탑(2기)		
보물 제529호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진도군 군내면 금골길 58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10호	진도 상만리 오층석탑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675
해남군의 석탑(6기)		
보물 제301호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삼층석탑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 9 대흥사
보물 제320호	해남 대흥사 삼층석탑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전남 문화재자료 제245호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동 삼층석탑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 9
전남 문화재자료 제246호	해남 대흥사 만일암지 오층석탑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 9
비지정	해남 청신리 석탑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비지정	해남 은적사 삼층석탑	
화순군의 석탑(12기)		
보물 제796호	화순 운주사 구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보물 제798호	화순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276호	화순 운주사 칠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및 대초리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277호	화순 운주사 쌍교차문 칠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70-1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278호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 앞 칠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941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279호	화순 운주사 거북마위 교차문 칠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8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280호	화순 운주사 대웅전 앞 다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01-1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281호	화순 운주사 칠성마위 앞 칠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8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282호	화순 운주사 발형 다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18
전남 문화재자료 제63호	한산사지 삼층석탑	화순군 동북면 신율리 949
전남 문화재자료 제256호	화순 운주사 거북마위 오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8
전남 문화재자료 제257호	화순 운주사 수직문 칠층석탑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36
비지정	운주사 거지석탑	
비지정	운주사 명당탑(2기)	
비지정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뒤 삼층석탑	
비지정	운주사 범성료 앞 삼층석탑	
비지정	운주사 범성료 앞 이층석탑	
비지정	운주사 산신각 앞 석탑재	
비지정	운주사 행해당 뒤 언덕 일층석탑	
*비지정(지정해제)	화순 쌍봉사 대웅전(삼층 목탑)	

경향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강한 전통에의 집착은 오히려 이 지방의 문화적 기반이 백제보다는 마한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들 문화의 기반은 백제의 중심문화와 대립할 만큼 강하고 토착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문화적 기반이 불교의 수용을 쉽게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마침내는 이들 웅관묘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한 6~7세기가 지나고 나서 7~8세기에 이르러서야 서서히 느린 속도로 불교문화의 전파가 가능했을 것으로 풀이된다.⁶⁾ 결국 신라의 새로운 영토가 되고 나서 신라 왕경의 불교문화가 전남지역으로 서서히 파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이 때 백제의 문화적 잔재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9세기에 접어들면서 선종의 유행을 따라 당 유학에서 돌아온 고승들이 중앙왕권 또는 신라 귀족인 지방영주의 비호를 얻어서 주로 지리산 주변에다 화엄사, 실상사, 태안사 등의 가람을 일으킴으로써 소위 구산선문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 탑의 건립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사찰의 건립이 선종의 유행이후 당 유학과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늦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3. 전남지역 탑파의 분포 상황

전남지역 석탑의 분포는 크게 몇 가지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8세기 중반이후 나타나는 신라식석탑을 비롯하여 통일신라 말기의 약화된 양식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보여지는 신라양식의 흐름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영산강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 즉 전남지역의 동부와 남부의 일부 지역(순천, 광양, 보성, 장흥 등)에서만 석탑이 나타나는 분포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산강 지역의 토착문화라 여겨지는 웅관묘 분포지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마 백제의 옛 영토라기보다는 백제의 불교를 받아들이기엔 꺼끄러운 마한의 문화적 상이성과 배타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고려시대의 특징은 우선 석탑건립이 前代에 비해 전국적으로 확산 분포된 점으로 신라의 석탑이 경주지역의 부근에 밀집되어 나타나는데 반해 고려의 경우 왕도인 개경부근이 우세하긴 하지만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분포상의 변화는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호국적인 왕실불교에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대중화된 경향을 보이는 점이다. 따라서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띠는 국가종교로서 전국적인 형태의 사찰 조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의 舊都郡 지역에 새로운 탑파를 다수 건립한 것 등이 그러한 점이라 하겠다.⁷⁾

또 다른 논거로서 고려시대의 조탑 활동에 순수한 지방세력 내지는 민중이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경북 예천의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명문, 경북 공에서 대구박물관 앞뜰로 옮겨진 淨兜寺址五層石

Fig 2. Jeongdosa site 5 Story Stupa (정도사지 오층석탑)

塔 내에서 발견된 造成形止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는 많은 경우 그 지역민의 발원에 의해 석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 석탑의 양식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前代의 왕도 중심의 일률적인 건립양식에서 벗어나 각 지방의 토착세력이 건립에 관여했을 때 일률적인 규범보다는 각기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어 다양한 형태의 건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⁸⁾

전남지역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흐름은 고려시대 석탑에서 나타나는 백제적인 요소의 출현이다. 따라서 백제의 고토였던 충청지역과 전북지역에서는 고려시대에 들어와 정립사지 석탑을 모방

Fig 3. Kyungju namsanri 3 story stupa (경주 남산리 석탑)

한 백제전형양식의 석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남지역에도 이의 한 흐름이 되고 있는 백제양식계 석탑들이 나타나고 있다.⁹⁾ 이들 중 전남지역에서 나타나는 백제양식계 석탑들은 주로 전남지방의 북부

6) 성춘경, 『전남에는 왜 백제의 불교문화가 없는가, 백제의 신비를 풀다 7』, 금호문화, 1992.

7) 고유섭, 『조선건축미술사 초고』 고려의 건축-불사건축, 1964.

정영호, 『한국의 미, 석탑』, 중앙일보사, 1989, p.175~176.

8) 정영호, 앞 글, p.176.

9) 천득염, 『백제계석탑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전개되고 있는데 백제양식계 석탑들 중 비교적 신라양식 탑의 형식을 상당부분 절충하는 의장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담양, 곡성, 남원 등 전남의 북부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나타나는 탑신을 받고 있는 받침대가 유난히 강조된 모습이 특징적인 하나의 부류와 나주, 화순, 보성, 진도 등 전남의 서부와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나타나는 탑의 높이에 비해 초층 탑신이 지나치게 높고 전반적으로 좁은 폭을 갖는 또 하나의 부류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전남, 광주지방에 산재해 있는 탑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양식상의 특징은 어떠한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석탑들은 국보가 3기, 보물이 29기, 지방유형문화재가 19기, 문화재자료가 14기로 총 65기이다. 시기적으로는 통일신라 탑이 15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고려시대 탑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통일신라시기의 석탑들은 여느 신라양식탑과 같은 전국적 양상을 지닌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려시대의 석탑들은 전남지방의 지역적 특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4. 전남지역 불탑의 조형특성

4.1 전남지역의 통일신라시대 석탑

7세기 초에 출발한 한국의 석탑은 후대로 내려갈수록 변화 양상이 뚜렷하다. 삼국에 있어서도 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즉 고구려는 1탑3금당형식에서 비롯한 8각형석탑이라 짐작되며 백제는 목조건축을 변안하면서 남조적인 여성적인 모습의 우아한 방형다층석탑으로, 신라는 백제와 비슷한 형식이나 전탑이 지니는 강건하며 남성적인 모습으로 각각의 지역적 특징을 지닌다.

특히 통일신라석탑은 8세기 후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9세기에 들어서면서 후기 석탑양식을 나타내게 된다. 전대의 탑에 비해 규모가 더 작아지고 외관이 섬세해지며, 탑신석이나 기단의 면석 등에 불상, 사천왕상, 천인상, 십이지상 등을 조각하여 장식적으로 된 것들이 많다. 또한 옥개석의 끝이 보다 얇아지며, 추녀의 끝 면이 날카롭게 경사진 각을 이루게 되고, 옥개받침부분이 얇아지며, 종래의 5단이 4단, 혹은 3단으로 줄어든 것이 많다. 또한 옥개석 위의 탑신받침도 2단에서 1단으로 작아지고 각형에서 호형으로 변화하였으며, 충수도 삼층탑에서 오층탑

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인 규모 역시 중형, 소형탑으로 바뀌는 변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9세기에 들면서 일부 변형이 나타나고 9세기 후반에는 현저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¹⁰⁾ 특히 기단의 저석과 중석이 하나의 돌로 되었고, 상층 기단의 탱주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 것이 많다. 또한 기단을 돌덩어리 모습의 大形石으로 쌓아서 건축물의 기단과 같이 만들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전남지방 불교미술의 여명기라 할 수 있다. 전남지방은 신라에 병합되고 나서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었다. 9산선문의 본거지인 보림사와 태안사, 화엄사, 쌍봉사, 연곡사 등에서 국보급 불교조형물들이 조영되었다. 특히 8세기 중반 이전의 불

Fig 4. Borimsa 3 Story Stupa (보림사삼층석탑)

교적 조형물은 찾을 수 없고 8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분포지역을 보면 전남의 동북부지역인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을 비롯하여 각황전 앞 석등, 동서 오층석탑, 곡성 태안사의 적인선사 승탑, 화순 쌍봉사의 철감선사 승탑 및 탑비, 광주의 동오층석탑과 약사암의 석조여래좌상 등이다. 또한 전남의 남해안을 잇는 광양 중흥사삼층석탑, 보성의 유신리 마애불 및 우천리 삼층석탑, 순천 선암사의 동서삼층석탑, 장흥 보림사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동서삼층석탑, 보조선사창성탑 및 탑비, 해남 대흥사의 삼층석탑 및 북미리암 마애여래좌상,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이라 하겠다.¹¹⁾

전남지역에 석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통일신라시대부터이다. 전남지역은 삼국시대에 백제에 속했던 곳이나 백제시대의 불탑이 아직까지 1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중심 세력들에 의해 섬진강을 건너 전남의 동부지역에서 사찰건립이 시작되었고 이에 동반하여 신라석탑도 자연스럽게 건립되었을 것이다. 즉 전남지역에서의 불교미술의 발흥은 경주중심의 불교전개가 화엄종

10) 임영배, 「한국탑과건축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1, p.51.

11) 성춘경, 『전남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6, p.14

과 선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로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²⁾ 더욱이 이는 전남의 서부지역에서 통일신라시대 사찰이나 건탑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이를 짐작하게 한다.

현존하는 전남지방의 석탑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이 그 효시가 된다. 이는 비단 석탑에서뿐만 아니라 전남의 불교미술품으로서도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 평가되고 있다. 화엄사에 건립된 사사자 삼층석탑은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8세기 석조물인 점에서 가야산이나 가지산보다 먼저 불사가 이루어져 전남지역 불교미술의 발달에 촉진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¹³⁾ 특히 근년에 발견된 국보 「白紙墨書 華嚴經券」의 발문¹⁴⁾에 따르면 경주 황룡사의 승려인 緣起가 호남을 중심으로 사경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이 연기가 바로 화엄사를 창건하였다고 기록된 煙氣와 동일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신라사경의 조성연대가 天寶年間, 754-755이어서 신라 경덕왕대에 해당되는 바 이것은 화엄사의 창건연대라 알려진 6세기경(진흥왕 5년, 544년)과 관련시켜 볼 때 2백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이 묵서 화엄경이 화엄사의 사사자 삼층석탑에서 발견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묵서 화엄경의 제작연대가 경덕왕 13년부터 14년, 즉 754부터 755년 사이의 일이므로 탑의 조성도 이때를 전후해서 화엄경 불사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그렇다면 통일신라시기인 천보년간에 황룡사의 승려인 연기가 화엄사를 창건하고 그의 공적에 의하여 전남지방의 최고석탑인 화엄사사사자석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신라석탑은 경주를 중심으로 7세기 초기에 발생하여 발전하였고, 신라의 삼국통일로 전남, 광주지방인 백제의 영토에 신라석탑이 나타나게 된다. 8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신라식 석탑의 전형은 이후 오랫동안 지켜진 형식으로¹⁶⁾ 방형평면의 기본양식과 중층형식은 한국적

탑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¹⁷⁾

Fig 5. Kwangju East 5 Story Stupa (광주 동오층석탑)

통일신라시기인 9세기 전반으로 보이는 광주 지산동오층석탑(광주 동오층석탑)은 이 중기단을 갖춘 전형적인 신라 하대형식의 탑이다. 탑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단부는 여러 개의 돌을 짜 맞춰 구성하였으나, 탑신부의 몸돌과 지붕돌은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졌다. 하층기단의 면석에는 귀기둥인 우주와 버팀기둥인 탕주가 2주 있고 몇 개의 판석으로 짜여 있으며, 상층기단의 중석도 역시 몇 개의 판석으로 되었다.

탑신부에 있어서 탑신과 옥개석은 각각 1석인데 각층의 탑신면에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추녀 사이가 좁아져 두꺼우며, 轉角에 이르도록 직선이고 상면에서 반전되고 있다.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이 남아 있으나 파손이 심하다. 1955년 해체 수리시 4층 옥개석 윗면에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그 후 1961년 다시 수리를 하여 일부 석재를 보완하였다.

탑신을 비롯해 각부가 고준하게 보이는 탑으로 신라석탑의 기본형을 잃지 않은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특히 지붕돌 밑면의 옥개받침이 1층은 5단인데 비해 2층부터는 4단으로 줄어들어, 제작연대가 통일신라 후기로 내려움을 알 수 있다.

Fig 6. 3 Story Stupa front of Daeheungsa Eungjingeon (대흥사 응진전 앞 삼층석탑)

9세기 전반의 작인 대흥사 응진전 앞 삼층석탑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옥개받침이 5단이었던 것이 4단으로 줄고 탕주의 수는 하층기단은 2주, 상층기단은 1주로 줄어들었다. 옥개석 위의 탑신받침은 각형 2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과 가까운 남원 실상사 동·서 삼층석탑(실상사 창건 826)은 상하기단의 탕주가 각각 1주이고, 옥개받침의 수도 4단으로 줄어드는 보

12) 조은경 외, 「전라도 석탑의 세부기법고찰- 옥개석 물끓기흙과 풍탁공을 중심으로-」, 문화재 제40호, 2007, p.276

13) 박경식,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 예경출판사, 2002, p.47

14) 황수영, 『신라백지묵서 화엄경』, 미술자료 24호, 1979, p.1~9.

15)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제3집, p.722.

16) 정영호, 앞의 글, p.173.

17) 임영배, 「한국탑과건축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1, p.49.

다 약화된 형식이 나타난다.

Fig. 7. Silsangsa 3 Story Stupa (실상사 동서삼층석탑)

통일신라 말기로 내려오는 9세기 후반에는 석탑의 규모가 작아지고 구성요소들이 보다 약화된 현상이 나타나며 현저한 변화를 보인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들 중 상당부분이 9세기 후반에 해당되는데 화엄사 동서 오층석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삼층석탑으로 규모가 작아지고 약화된 구성요소들의 특징을 보인다. 대표적인 석탑은 장흥 보림사삼층석탑, 중흥산성삼층석탑, 선암사삼층석탑, 금둔사지삼층석탑, 증심사삼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석탑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하층기단의 탱주 수는 주로 1주인데 예외적으로 3주, 2주 또는 아예 없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상층기단의 탱주 수는 1주로 고정되었다. 옥개받침은 주로 4단인데 예외적으로 5단과 3단도 나타난다. 또한 탑신받침은 1층이 호형, 2층이 각형 2단으로¹⁸⁾ 나타나고 주로 각형 1단으로 고정되었다.

이외에도 8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異形 석탑들이 전남지역에서도 일부 출현하고 있다. 8세기 중엽 이후 전반적으로 건축적 결구의 표현이 단일화된 부재에 조각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석탑 자체에 장식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형식 석탑이 출현하게 된다. 이 시기에 건조된 석탑의 장식적 경향은 비단 석탑 뿐만 아니고 신라 중대 후기의 문화적 경향으로 경덕왕대(742-764)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유구의 장식적 표현에 그 논거를 두고 있다.¹⁹⁾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형석탑으로서는 부재의 결구방식이 전형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외 화엄사 원통전 앞 사자석탑이 대표적인 예이다. 외형은 신라

Fig. 8. Silsangsa Beakjagam 3 Story Stupa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전형양식인 방형, 중층의 기본틀을 갖추고 있으나 기단 및 탑신부의 각 면에 천인상, 안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상, 사방불, 불보살, 인왕상 등 여러 상을 조각하여 표면장식이 화려한 장식적인 석탑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예는 구례 화엄사 서 오층석탑, 인근지역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순천 금둔사 삼층석탑 등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출현은 특이하게도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의 동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통일신라시대의 전남지역의 석탑은 신라전형양식 뿐만 아니라 이의 변화과정 중 나타나는 약화된 형식들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의 동부, 그리고 남부의 일부지역에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의 서남부 지역에는 사찰의 건립이 드물게 나타났기 때문에 석탑 역시 조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영산강 수계권역에 있는 마한이나 웅관묘 집단이라는 기존의 토착문화와의 배타적인 입장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불교문화의 영향력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수계권역, 그러니까 전남의 서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전파되어 8세기중반 이후부터 신라석탑의 활발한 전개를 이루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4.2 전남지역 통일신라석탑의 세부양식²⁰⁾

전남지역에 산재한 통일신라시대석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부재상호간의 높이 체감비, 옥개와 기단부를 중심으로 형태나 세부적인 사항, 가공과 조립방법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18) 2단의 각형 탑신받침을 갖는 탑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광주 동 오층석탑, 대흥사 삼층석탑, 화엄사 동 오층석탑이다. 반면 옥개석 상면의 탑신받침이 2단으로 아랫단은 弧形이고 윗단은 각형인 경우는 보림사 삼층석탑과 선암사 서 삼층석탑이다. 또 1단의 각형 받침만 있는 경우는 중흥산성 삼층석탑과 화엄사 서 오층석탑이다.

19) 장충식, 『신라석탑연구』, 일지사, 1987, p.145
정영호, 『석탑』, 대원사, 1989, p.90.

20) 천득염, 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 석탑1,2,3』

송영아, 「통일신라후기석탑의 양식특성 및 비례체계에 관한 연구-전라도 통일신라후기석탑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조은경 외, 「전라도 석탑의 세부 기법 고찰-옥개석 물뚫기홈과 풍탁공을 중심으로-」, 문화재 제40호, 2007

양승문, 「전남지역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세부양식 분석-옥개부를 중심으로」(2013, 6)의 내용을 참조함.

가. 체감비

전남의 대표적인 통일신라시대석탑 10기를 실측 조사한 결과 절대 높이는 낮아졌으나 체감비는 불국사 3층석탑보다 0.12 커서 오히려 높아져 보인다. 하층기단은 대체적으로 높아지고 상층기단은 다 높아졌다. 1층 옥개석은 낮아지고 2층 탑신은 대체적으로 높아졌으며 2층 옥개석은 모두 다 낮아졌다. 3층 탑신은 9기가 낮아지고 1기만 높아졌다. 3층 옥개석은 10기 다 낮아졌다. 이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높이의 체감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비하여 더 커서 細長한 느낌을 주고 옥개석은 얇아져 안정감을 찾고 있다.

나. 기단부

통일신라 말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변화는 일반형 석탑에서 보이는 이중기단 또는 삼층기단(삼단형)으로 변화되는데 단층기단은 보성 우천리삼층석탑이고 구례 연곡사삼층석탑은 삼층기단에 속한다. 단층기단은 낮은 하층기단이 생략되어 지대석 위에 바로 상층기단이 놓이게 된 형식으로 목조건축의 기단이 단층이고 삼층기단은 단층이고 삼층기단인 점과 아울러 서로 관련이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¹⁾ 특히 구례 화엄사 동오층석탑에서 단층기단의 약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양식들은 이후 고려시대 석탑건조 양식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옥개석 낙수면

흔히 석탑에 있어서 옥개석의 상부 지붕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낙수면이라고 한다. 건립시기에 따라 낙수면의 경사도와 길이가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시대가 앞설수록 길이가 길고 경사가 완만하다. 목조건축에 있어 지붕선이 처마 끝에 이어서 솟아오르는 형상과 유사하다.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에서는 전각의 반전이 날렵하고 경쾌하나, 고려시대 이

후의 석탑에서는 완만하여 둔중한 감을 주고 있다.

<Table 2> Style of Falling Water Face
(낙수면과 전각형식)

명칭	낙수면	전각 반전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8C중반)	완만	완만
광주 동 오층석탑(9C전반)	완만	뚜렷
대흥사 삼층석탑(9C전반)	급경사	뚜렷
보림사 삼층석탑(870년)	급경사	심함
중흥산성 삼층석탑(9C후반)	완만	뚜렷
화엄사 서 오층석탑(9C후반)	평박	심함
화엄사 동 오층석탑(9C후~10C전반)	평박	완만
선암사 동서 삼층석탑(9C후반)	평박	뚜렷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9C후반)	완만	완만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9C후반)	급하고 좁음	심함
연곡사 삼층석탑(9C후반~10C전반)	완만	뚜렷
금둔사지 삼층석탑(9C후반~10C전반)	평박	뚜렷

옥개석의 경우는 낙수면과 전각의 반전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곡선미를 보이고 있어, 석재를 다루는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석탑을 건립함에 있어 목조건축의 지붕을 재현하고자 했던 의지의 소산이라 생각된다. 9세기에 이르러 건립되는 부도에서는 낙수면의 기왓골과 더불어 암·수막새기와는 물론 처마와 전각의 반전, 추녀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석조건축에서 지붕의 표현은 석탑에서 처음 시도되어 부도에서 완성을 이룬 것으로 볼 때 석탑의 옥개석은 목조건축을 충실히 재현하고자 노력했던 결과로 보여 진다.

전남의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낙수면은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체적으로 평박하거나 완만하다. 그에 반해 전각의 반전은 완만하기 보다는 뚜렷하여 경쾌한 것이 대부분인데 다소 심한 반전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다.

라. 옥개석 물뚫기 홈

물뚫기 홈은 옥개석 밑면에 옥개석에서 흘러내리는 빗물 처리를 위하여 가공된 것으로 목조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석탑만이 갖고 있는 세부 가

21) 정영호, 앞의 글, p.174.

공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물끓기 흠은 석탑 조영 초기에는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으나 통일신라 이후 석탑에 있어 정형화가 진행되면서 발전된 가공기법으로 그 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끓기흠의 위치나 폭 등은 다양한데 옥개석 밑면에 별도로 가공하는 기법에서 점차 옥개받침석과 연결되는 의장적 표현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Table 3> Style of Cutting Water Hole (물끓기흠 형식)

명 칭	시 대	물끓기 흠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8C중	×
광주 동 오층석탑	9C전	×
대흥사 삼층석탑	9C전	○
보림사 삼층석탑	870년	○
중흥산성 삼층석탑	9C후	×
화엄사 서 오층석탑	9C후	×
화엄사 동 오층석탑	9C후~10C전	×
선암사 삼층석탑	9C후	×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9C후	×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9C후	○
연곡사 삼층석탑	9C후~10C전	×
금둔사지 삼층석탑	9C후~10C전	×

특히 별도로 가공되는 경우는 물끓기흠의 단면 형태가 원형인 것과 각형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단면형태는 실상사 동서삼층석탑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사찰내에 조성되는 석탑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장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법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²²⁾

전남지역의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 물끓기 흠은 <표 3>에서보는 바와 같이 총 11기의 석탑에서 보이는데 대표적인 석탑은 대흥사 웅진전 앞 삼층석탑(9세기전반), 보림사 삼층석탑(870년),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9세기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남지역에서 해남, 장흥, 영암으로 전남서부에 해당하고, 시기적으로 9세기 전후반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마. 풍탁공(風鐸孔)

풍탁공은 석탑의 주요 장엄을 위하여 옥개석의

모서리부분에 풍탁을 달아매기 위해 판 조그마한 구멍이다. 전남의 석탑중에서 18기정도에서 나타나는데 통일신라시대 석탑에는 7기 정도 보인다. 풍탁공의 유형은 천공형과 삽입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삽입형의 경우 정형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세분된다. 전라도 지역석탑에서 많이 나타나는 삽입형 풍탁공은 유형은 옥개석 전각면 양측 모서리에 1개씩으로 1면에 2개의 정형이 가공되는 형식이다.²³⁾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 풍탁공이 나타나 있는 석탑으로는 광주 동 오층석탑, 중흥산성 삼층석탑, 선암사 삼층석탑,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연곡사 삼층석탑, 금둔사지 삼층석탑이다. 이를 지역적으로 구분해 보면 광주, 광양, 순천, 보성, 구례로 대체적으로 전남동부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대체로 9세기 후반이다. 특히 정형에서 많이 이탈한 운주사석탑에서도 풍탁공이 나타나고 있다.

<Table 4> Style of Pungtak Hole (풍탁공 형식)

명 칭	시 대	풍 탁 공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8C중	×
광주 동 오층석탑	9C전	○
대흥사 삼층석탑	9C전	×
보림사 삼층석탑	870년	×
중흥산성 삼층석탑	9C후	○
화엄사 서 오층석탑	9C후	×
화엄사 동 오층석탑	9C후~10C전	×
선암사 삼층석탑	9C후	○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9C후	○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9C후	×
연곡사 삼층석탑	9C후~10C전	○
금둔사지 삼층석탑	9C후~10C전	○

바. 탑신받침과 노반받침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은 8세기 이후 시대가 내려가면서 부분적인 변화가 생기며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옥개석 위의 탑신받침(혹은 탑신 괴임)도 2단에서 1단으로 작아지고 각형에서 호형으로 변한다.

<Table 5> Style of Tapsin and Noban Stand (탑신받침과 노반받침양식)

22) 조은경 외, 위의 논문, p.272.

23) 조은경 외, 위의 논문, p.272.

전남의 통일신라기 석탑의 탑신받침은 2단 각형이 6기, 1단 각형이 4기로 대체적으로 2단 각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혼합형을 보이는 것도 있다. 보림사 삼층석탑은 3단으로 角形・弧形・角形으로 되어있으며 선암사 삼층석탑은 기단의 갑석 위의 받침은 3단으로 각・호・각으로 되어 있는 반면 옥개석 위의 받침은 2단의 호형・각형을 보인다. 특히 보림사 삼층석탑에 있어 3단의 경우는 맨 아랫단이 아주 낮아 잘 구분이 안될 정도이지만 선암사 삼층석탑의 기단갑석은 뚜렷하다.

노반받침의 경우는 1단 각형이 6기, 2단 각형이 4기로 대체적으로 1단 각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탑신받침에서 혼합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반받침에서 역시 혼합형을 그대로 보인다.

4.3 전남지역의 고려시대 석탑

신라에서와 같이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석탑은 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예배 대상이었다. 따라서 석

Fig 10 Bohyeunsa Octagonal 13story Stupa (모향산 보현사 팔각십삼층 석탑)

탑은 그 수에 있어서나 조형미에 있어서 당시 불교적인 조형미술의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오늘날에도 많은 고려석탑의 유례를 볼 수 있다. 이는 수적으로는 개경 부근이 보다 많이 분포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 유례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러한 분포 변화는 시대상의 변화에 따르는 것으로 일반적인 추세는 왕실 불교적 입장에서 출발한 한국의 불교가 수 백 년을 지나면서 보다 보편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려의 석탑 건립에 있어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국가적인 조영이라 하겠다. 고려시대 역시 불교가 국가적 종교, 왕실불교로서 번영하였음은 물론, 전대로부터 이어지는 호국 불교적 성격은 국가 생성 초기부터 많은 국가적 사원의 창건을 이루게 되었다. 국가적 조영의 경우 역시 수도인 개경이 우세한 데 개경의 법왕사와 왕륜사 등 10사찰의 건립과 수많은 불사가 있었다는 기록 등은 불교국가로서 변모를 보인다. 태조 왕건의 훈요10조에도 반영되고

명 칭	탑신받침	노반받침
화엄사 동 오층석탑	2단 각형	1단 각형
선암사 삼층석탑	2단 호・각형	2단 호・각형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2단 각형	2단 각형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2단 각형	2단 각형
연곡사 삼층석탑	1단 각형	1단 각형
금둔사지 삼층석탑	1단 각형	1단 각형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2단 각형	2단 각형
광주 동 오층석탑	2단 각형	1단 각형
대흥사 삼층석탑	2단 각형	2단 각형
보림사 삼층석탑	3단 각・호・각형	3단 각・호・각형
중흥산성 삼층석탑	1단 각형	1단 각형

Fig 11. Wanggongri 5 Story Stupa (왕궁리 오층석탑)

있듯이 국가적인 조영이 전국적인 모습으로 행해졌음을 나타내게 하여준다. 대체로 개경의 칠층석탑의 건립과 연관되

는 것으로 믿어지는 고구려의 옛 서울인 서경의 구층탑 건립, 신라의 옛 서울인 경주의 황룡사 구층목탑의 중수, 백제 구도 부근의 거대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그리고 후백제군을 격파한 곳에 천호산 개태사를 건립한 것 등은 모두 그러한 면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 중의 하나는 우선 석탑 건립이 왕도를 중심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대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분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지역민의 발원에 의하여 여러 석탑이 건립되었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석탑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고려시대 석탑의 전국적인 분포나 그 建塔에 있어서 토착세력의 참여의 가능성은 바로 고려 석탑의 양식상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함을 짐작케 한다. 즉 前代의 王都 중심의 일률적인 건립양식에서 벗어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각 지방의 토착세력인 지역주민이 건립에 관여했을 때, 과거 왕경중심의 일률적인 규범보다는 각기 제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곧 다양성 있는 석탑양상을 보일 것이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고려는 정치적인 관용을 베풀어 널리 인재를 등용하여 새 왕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문화면에 있어서도 신라문화양식을 계승하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양식도 수용하여 재구성했다.²⁴⁾ 즉 고대국가의 모순을 정리하여 새로운 국가로 질서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태조 왕건은 지방호족들을 중앙에 포섭하는 동시에 이들의 자치적 기반인 경제력과 정치적 권한을 인정했다. 이는 모든 지방호족을 중앙에서 다스릴만한 국가권력이 미흡했던데 기인하며 이러한 현상은 고려의 지방제도 정비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²⁵⁾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의 조형미술은 지방색을 띠게 되었고, 탑과건축에 있어서도 고구려의 옛 영토에 영명사 팔각오층석탑을 비롯하여 울리사지 팔각오층석탑, 광법사 팔각석탑, 평양 간사정 팔각칠층석탑, 보현사 팔각십삼층석탑 등을 건립하였고²⁶⁾ 백제의 고토에도 왕궁리 오층석탑, 비인 오층석탑, 장하리 삼층석탑, 계룡산 남매탑 등을 비롯한 다수의 석탑이 건립되었다. 전남지역에는 담양 남산리오층석탑과 곡성 가곡리오층석탑, 강진 월남사지삼층석탑, 일부 운주사석탑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고려사회의 정치, 종교적인 경향에 대한 영향으로 전남지방의 석탑조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식을 보인다. 전남, 광주지역의 고려시대석탑 중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파악된 것은 54기이다. 이들을 양식적으로 구분하면 순수 신라양식계승형식의 석탑과 백제양식을 계승하는 형식, 그리고 백제적요소와 신라적 요소가 혼합, 절충된 절충형식석탑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라양식계 석탑들은 신라석탑에서 약간 변모된 모습을 보이는데 삼층에서 오층으로 높아지고 고준해지며, 장식화 되고 세부수법이 간략화되는 양식상의 변화를 보인다. 신라양식계의 대표적인 석탑으로서는 (전)광주 성거사지오층석탑을 비롯하여 나주 북망문 밖 삼층석탑,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삼층석탑,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등을 들 수 있

다.

또한 백제의 구영토인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지방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러 백제계 석탑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석탑양식의 형성은 고려의 불교가 신라시대에 비해 보다 대중화되고 불사건축과 미술품이 아울러 전대인 신라의 중앙집권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지방에까지 파급되고 순수한 지방세력 내지는 민중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착적인 특색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백제의 옛 영토에 대한 고려 중앙정부의 정치적 관용과 문화적 수용에 의하여 백제시대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석탑들이 재현되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려시대 건립된 석탑 중에서 백제석탑의 요소를 계승한 탑들은 이들이 갖는 조형적, 구조적 특성에 따라 계승한 순수백제계승양식과 백제와 신라탑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절충한 백제신라절충양식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²⁷⁾ 백제양식석탑은 먼저 지역적으로 백제의 중심무대였던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서 나타나는 탑들이다. 이들은 부여지역과 전라북도 북부지역에 분포된 탑들로서 서천 비인오층석탑, 부여 장하리삼층석탑, 계룡산 오층석탑,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김제 귀신사지삼층석탑, 옥구 죽산리삼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충실히 모방한 것이거나 신라적인 요소와 함께 조영되었으나 백제적인 의장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시대에 건립된 백제계승 양식 중 연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추측된다.

Fig 12. Gokseoung Gagokri
5 Story Stupa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이들 석탑의 조형적 특징은 모두가 단층기단으로 평평하고 얇으며 넓은 즉 平博廣大한 옥개석이 田字形 8개석으로 조립되거나, 田字形 4개석으로 구성되었다. 옥개석의 밑에는 계단모양

으로 각진 형식과 경사진 斜菱形 옥개받침이 각각 별석재로 조립되어 있으며 지붕돌인 옥개석의 단부에서 경쾌한 들림이 이루어진 反曲이나 옥개석 상

24) 이은창, 「백제양식계 석탑에 대하여」, 불교학보 제3, 4합집, 1966, p.291.

25) 정선중, 「백제계석탑에 관한 일고찰」, 단국대학교사학회, 1986.

26) 고유섭, 『朝鮮建築美術史 草稿』 열화당, 2006.

27) 천득염, 「백제계석탑의 조형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177~187.

부의 내림마루의 두툽한 隅棟 형태, 탑신의 급격한 체감으로 인한 고준한 모습, 다수의 별석재를 조립 구성한 목조가구의 수법 등에서 목조건축적인 수법을 지닌 백제석탑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남에서는 월남사지삼층석탑이 외형적인 모습에서 차이는 나지만 가장 근사한 형태를 지닌 탑이며, 담양 남산리오층석탑과 곡성 가곡리오층석탑, 담양 연동사지삼층석탑, 일부 운주사석탑 등에서 백제미술적인 석탑조형양식의 잔재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에 있는 고려시대석탑은 부분적으로 신라석탑의 특징을 절충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그들이 갖는 외형적인 특성에 따라 탑신받침대형과 細長·高峻形으로 나누어²⁸⁾ 살펴볼 수 있겠다.

이들 중에서 하나는 탑신을 받고 있는 받침대가 유난히 강조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탑신받침대형²⁹⁾이라고 할 수 있다. 담양 남산리오층석탑, 곡성 가곡리오층석탑, 담양 연동사지폐탑, 남원 만복사지오층석탑 등으로 전남의 북부지역과 그 인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각층 탑신하부에 탑신보다 넓고 두터운 탑신받침대가 별석으로 놓여있는 점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림사지석탑의 약화된 모습을 나타내며, 신라전형탑의 이중기단과는 다른, 즉 우주와 탕주가 생략된 모습의 약화된 기단이나 2단 내지 3단의 뚜렷한 각형 옥개받침, 얇고 넓은 단일석에 모서리부분의 반곡이 뚜렷한 옥개석, 내림마루인 우동의 호형단면 등에서 전반적인 백제양식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석탑이 갖는 외형적인 모습이 가늘고 높은 형태로 나타나는 세장·고준형³⁰⁾이다. 나주 송제리 오층석탑, 화순 운주사칠층석탑, 보성 옥마리오층석탑, 진도 금골산오층석탑 등 백제양식을 부분적으로 모방한 석탑들로 지역적으로는 백제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도 신라말기 고려의 중심세력과 교류가 빈번했던 지역에 분포한다. 이들 석탑은 이중기단이나 백제식 단층기단을 겹쳐놓은 듯하며, 초층 탑신이 매우 높고 2층 이상

의 탑신은 초층에 비해 급격한 체감비율을 보여 가늘고 높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옥개석은 단일석으로 좁고 두툽하며 여러 개의 각형 옥개받침과 경사가 급한 낙수면을 이루고 모서리에서 가벼운 반곡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탑신을 비롯한 전반적인 모습에서는 백제양식의 영향을 느낄 수 있으나 옥개석에서는 신라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전형적인 백제양식에서는 다소 벗어난 형태라 생각된다.

한편 하나의 장소에 다양한 형태의 석탑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화순의 운주사는 고려시대 이형석탑의 보고라 할 수 있다. 3기의 폐탑을 포함 21기의 석탑이 방형, 원형, 원구형, 모전계열, 석주형 폐탑 등의 형식으로 나타나고³¹⁾ 있으나 전형적인 석탑의 규범에서 벗어나 이들 양식에 많은 의견이 있다. 이들 석탑들은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3~4차례에 걸쳐 석탑의 건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³²⁾ 이 석탑들의 조형특성을 통해서 몇 가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하나는 방형석탑에서 보이는 백제계석탑의 양식적인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백제신라 절충양식 중 세장·고준형에 해당하는 석탑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이 지역 역시 인근의 나주, 보성지역에서 출현된 석탑들과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신라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건립되었던 모전석탑의 형식이 운주사에서 2기나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형식은 벽돌로 내쌓기와 들여쌓기를 하면서 옥개석을 형성한 분황사 모전석탑을 시원으로 하는 전탑형식을 모방하고 있으나 실제의 모습은 의성 탑리오층석탑과 유사한 조형적 특성을 보이며 단일석재를 전탑과 같이 모각하는 기법이 사용되었다. 백제의 고토인 충청·전라지역에서는 강진 월남사지와 이곳 운주사에서만 그 예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또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운주사에서 다수의 이형석탑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원형석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형식의 탑신은 十角形이나 옥개석이 원형으로 이들

28) 천득염, 위의 논문, p.179.

29) 이 명칭은 필자가 자의적으로 칭한 것으로 아직 공론화 또는 공식화된 상태는 아님.

30) 이 명칭은 역시 필자가 자의적으로 칭한 것으로 아직 공론화 또는 공식화된 상태는 아님.

31) 천득염 외, 「운주사 다탑봉 석탑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1호, 1992, p.70~71.

32) 천득염 외, 위의 논문, p.150~155.

석탑들은 옥개석이 원구와 비슷한 주판알 혹은 떡시루 형태를 한 원구형과 옥개석이 얇고 넓은 원판 형태를 한 원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 석탑형식은 한국석탑에서는 흔치 않으나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부터 원형의 불탑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박경식은 석굴암 삼층석탑에서 원형석탑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³³⁾

5. 전남지역석탑의 특징

“전남지역의 석탑”이라는 용어가 썩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면적이 좁아 지역적 특성이 뚜렷한 전통유구가 많지 않을 것이고 지역적 특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그다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남이란 자연조건으로는 노령산맥에 의하여

전북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Fig 13. Ball shape Stupa 동쪽은 소백산맥이 남북으로 달리면서 경남지방과

경계를 짓고 있어 개념적으로는 막연한 지역의 의미를 가질지 모르나 결국 하나의 행정상의 규약일 뿐이다. 그러나 불탑의 지역적 특성을 찾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남지방 석탑의 효시는 750년경에 건립된 화엄사 4사자삼층석탑이다. 이 탑의 건립은 불교가 도입된 후 약350년가량이 지난 일이다. 즉 전남지방에는 삼국시대의 석탑은 없고 통일신라시대의 것이 그 祖形이라 하겠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양식으로 보아 광주 동5층석탑이 아닌가 생각된다.

- 통일신라시대 전남지방 석탑의 분포는 영산강의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강한 토착성을 지닌 웅관료 분포지역에서 백제와 불교문화가 쉽게 도입되기가 그다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배타성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섬진강

주변에는 영산강에 비하여 오히려 많은 佛寺와 석탑조영이 이루어졌다.

- 전남지방에서 나타나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양식은 뚜렷한 지역적 특성을 찾기가 어렵다. 즉 통일신라시대 일반적인 석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강한 중앙집권적 통치로 문화현상에서 지역성이 도출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전형적인 신라석탑양식이 이 지방에 널리 출현한다.

그림13 Disk-shaped pagoda in Unjusa

- 전남지역의 통일신라시대 석탑은 9세기 전반의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대흥사 응진전 앞 삼층석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전형적인 신라석탑에 비하여 변화가 생겼다. 즉 전체적인 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옥개석의 받침이 5단이었던 것이 4단으로

줄어들었으며 기단에 있어 탱주의 수가 하층기단은 2주, 상층기단은 1주로 줄어들었다. 또한 옥개석 위의 탑신받침은 각형 2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남원 실상사 동·서 삼층석탑(826년 실상사 창건)은 상하기단의 탱주가 각각 1주이고, 옥개받침의 수도 4단으로 줄어드는 보다 약화된 형식이 나타난다.

- 통일신라 말기로 내려오는 9세기 후반에는 석탑의 규모가 작아지고 구성요소들이 보다 약화된 현상이 나타나며 기단부가 변화하였고 이형석탑이 건립되는 등 현저한 변화를 보인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들 중 상당부분이 9세기 후반에 해당되는데 화엄사 東西오층석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삼층석탑으로 규모가 작아지고 약화된 구성요소들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들 석탑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하층기단의 탱주 수는 주로 1주인데 예외적으로 3주, 2주 또는 아예 없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면 상층기단의 탱주 수는 1주로 고정되었다.

통일신라 말기에 보이는 또 하나의 변화는 일반형 석탑에서 보여지는 이중기단이 단층기단 또는 삼층기단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보성 우천리삼층석탑과 구례 연곡사삼층석탑이 이에 속한다.

33) 박경식, 운주사석탑의 보편성과 특수성, 운주사 천불전탑의 불가사의와 세계유산으로서 탐색, p.230

단층기단은 낮은 하층기단이 생략되어 지대석 위에 바로 상층기단이 놓이게 된 형식으로 목조건축의 기단이 단층이고 목조건축을 변안한 백제계석탑들이 단층기단인 점과 아울러 서로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 전남지역 통일신라기 석탑 옥개부의 양식적 특징은 먼저 옥개석의 낙수면은 대체적으로 평박하거나 완만한 반면 전각의 반전은 경쾌하고 심한 반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물끓기흙은 대흥사 삼층석탑(9세기전반), 보림사 삼층석탑(870년), 신천리 삼층석탑(9세기후반) 등 3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끓기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몇 기 안되지만 지역적으로 구분해 보면 해남, 장흥, 영암으로 전남서부에 해당하며, 시기적으로는 9세기 전·후반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³⁴⁾

풍탁공이 나타나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은 총7기로 광주 동 오층석탑, 중흥산성 삼층석탑, 선암사 삼층석탑,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연곡사 삼층석탑, 금둔사지 삼층석탑이다. 이를 지역적으로 구분해 보면 광주, 광양, 순천, 보성, 구례로 대체적으로 전남동부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시기적 보면 대체로 9세기 후반이다.³⁵⁾

탑신받침(혹은 탑신괴임)은 2단 각형이 6기, 1단 각형이 4기로 대체적으로 2단 각형을 보이고 있다. 노반받침의 경우는 1단 각형이 6기, 2단 각형이 4기로 대체적으로 1단 각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보림사 삼층석탑 탑신받침과 노반받침에서 각각 3단의 호·각·호형, 2단의 호·각형의 혼합형이 나타나 있다. 한편 선암사 삼층석탑은 기단부는 뚜렷한 3단으로 호·각·호형으로 되어 있으나 옥개는 호·각의 2단으로 되어 있다.³⁶⁾

옥개받침은 초기에는 받침의 수가 5개였다가 후기로 오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이 전남지역 통일신라기 석탑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옥개받침의 수가 5단에서 4단으로 줄어들고 있다. 3단인 경우는 중흥산성 3층석탑이다.

이와 같이 옥개부의 형식은 대체적으로 통일신라기 석탑의 변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간혹 특이한 양식을 보이는 것도

Fig 14. Bosung Bongcheonri 5 Story Stupa(보성 봉천리오층석탑)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 석탑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그러나 고려시

대에는 고려시대 미술품의 전반적인 경향처럼 전형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석탑조형의 다양성을 보인다. 운주사석탑의 파격적인 다양성이나 해남 북미륵암석탑 기단부, 보성 봉천리오층석탑의 탑신에 나타난 것처럼 즉 지역인들의 참여에 의한 풍토적이며 토착적인 다양한 형태의 탑이 지방의 오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석탑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 고려시대 전남지방의 석탑에서는 백제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백제의 고토에는 고려시대에 들어와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모방한 백제전형양식의 석탑들이 충청도와 전북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전남지방에도 약간 변모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탑신에 비하여 옥개석이 유난히 넓고 얇으며 네 귀의 반전으로 인한 경쾌함이나 곡선적인 면모, 목조건축에서 나타나는 가구적인 구성수법 등에서 백제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 고려시대 전남지방에서는 월남사지 삼층석탑과 운주사모전석탑 등처럼 모전석탑이 출현하고 있다. 전탑은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출현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지방에서 모전석탑이 나타나는 것은 경상도지방과의 관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운주사의 석탑은 한 장소에 다양한 모습의 석탑, 특히 원형석탑과 모전석탑이 나타나고 있어 특이한 현상이다. 종래 우리가 갖고 있는 석탑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 김정기교수는 이 지방석탑의 특징을 타 지역에 비하여 오층탑이 많다는 점과 상륜부가 크다고 하였는데 주목해 볼 만 하다.³⁷⁾ 다만 통일신라시대의 오층석탑이라야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과 화엄사동·서 오층석탑의 3기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34) 조은경 외, 위의 논문, p.272.

35) 조은경 외, 위의 논문, p.272.

36) 양승문, 「전남지역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세부양식 분석-옥개부를 중심으로」, 2013. 6.

37) 김정기, 『나주의 고건축, 나주목의 재조명』, 목포대학박물관, 1990, p.194.

6. 결어

이상에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석탑의 분포현황 그리고 조형적,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남지역의 석탑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을 시원으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파악된다. 하나는 통일신라시대 전남지역의 석탑의 분포로서 신라전형석탑의 변화과정 중 나타나는 몇 가지 약화된 유형들이 전남의 동부 그리고 남부의 일부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남의 서부지역 즉, 영산강의 주변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이 과정 중 나타나는 석탑의 특징은 옥개석의 받침이 5단에서 3~4단으로 약화되거나 상층기단의 탱주가 2주에서 1주로 줄어드는 약화된 모습을 들 수 있고, 부재의 결구방식이 전형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기단 및 탑신부의 각 면에 여러 상을 조각하여 표면장식이 화려해진 이형석탑의 출현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흐름은 고려시대 사회상이 반영된 신라양식석탑 이외에 백제양식계 석탑들의 출현이다. 주로 전남의 북부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석탑들은 탑이 갖는 조형적, 구조적 특성에 따라 순수백제계승양식, 백제신라절충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중 특히 이 지역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백제신라절충양식을 탑신받침대형, 세장·고준형으로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전남의 북부지역과 그 인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탑신받침대형은 각층 탑신하부에 탑신보다 넓고 두터운 탑신받침대가 별석으로 놓여있는 점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림사지 탑의 약화된 모습을 나타내며, 우주와 탱주가 생략된 모습의 약화된 기단이나 2단 내지 3단의 뚜렷한 각형 옥개받침, 얇고 넓은 단일석에 모서리부분의 반곡이 뚜렷한 옥개석, 내림마루의 호형단면 등에서 전반적인 백제양식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전남의 서부와 남부의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세장·고준형이다. 이들 석탑은 이중기단이나 백제식 단층기단을 겹쳐놓은 듯하며, 초층 탑신이 매우 높고 2층 이상의 탑신은 초층에 비해 급격한 체감비율을 보여 가늘고 높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옥개석은 단일석으로 좁고 두툼하며 여러 개의 각형 옥개받침과 경사가 급한 낙수면을 이루고 모

서리에서 가벼운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탑신을 비롯한 전반적인 모습에서는 백제양식의 영향을 느낄 수 있으나 옥개석에서는 신라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전형적인 백제양식에서는 다소 벗어난 형태라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모전석탑과 이형석탑의 출현을 들 수 있다. 모전석탑은 백제의 고도였던 충청·전라지역 중 강진 월남사지와 화순 운주사에서만 그 예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양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형석탑은 화순 운주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리의 석탑들이 나타나는 점이나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보기 드문 원형석탑의 출현, 기존의 일반적인 개념의 석탑의 형태에서 벗어난 조형적 특성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Kang, In-G(u강인구), Culture of Baekje and H onnam(백제의 문화와 호남), Kwangju Museum, 1982
2. Sung, Chun-Gung(성춘경), Why is not there C ulture of Baekje in Chonnam?, Keumho Culture (금호문화). 1992
3. Sung, Chun-Gung(성춘경), Buddhist Statue of Chonnam, Hakyounmunhwasa(학연문화사), 2006
4. Go, Yoo-seob(고유섭), Brief Art History of Ch osun Dynasty(조선건축미술사 초고), 1964
5. Jeong, Young-Ho(정영호), Beauty of Korea-St one Stupa(한국의미-석탑), Joongang Daily New s(중앙일보사), 1989
6. Jeong, Young-Ho(정영호), Stone Stupa, Daewe unsa(대원사), 1989
7. Park, Kyung-Sik(박경식), A Study of Stone A rt of Silla Dynasty(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 Y eakyung Publishing Company (예경출판사), 200 2
8. Jang, Choong-Sik(장충식), A Study of Silla S tone Stupa(신라석탑연구), Ilgisa(일지사), 1987
9. Cheon, Deuk-Youm(천득염), Stone Stupa Of C honnam 1,2,3(전라남도의 석탑-1,2,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문화재 연구소), 2006

50 논문

10. Cheon, Deuk-Youm(천득염), A Study of Baekje Style Stupa(백제계석탑연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전남대학교출판부), 2000

접수(2013. 12. 12)

게재확정(2014. 02. 28)